

유니온케미칼 청주공장 폭발사고

농약 및 염료 중간제품 생산라인 폭발 ... 3명 경상에 플랜트 붕괴

유니온케미칼의 청주산업단지 소재 농약공장이 폭발사고를 일으켰다.

11월16일 오전 5시경 발생한 폭발사고로 직원 3명이 경상을 입고 건물 자체가 크게 파손됐으며 염산 등 유독물질이 유출돼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은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니온케미칼에서는 간부진을 청주로 급파해 사고수습에 들어갔다.

유니온케미칼의 청주 플랜트는 농약 및 염료 중간제품 등을 생산해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05/11/17>